

■ 설날 가정 예배 ■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때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 인도자

설날을 맞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 146:1-3 ..... 다 함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찬 송 .....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 다 함께

교 독 ..... 93. 새해(1) ..... 다 함께

기 도 ..... 가족 중

성 경 봉 독 ..... 수 20:1-6 ..... 인도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 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말 씬 ..... 마음의 도피성 ..... 가족 중

찬 송 .....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다 함께

주님의 기도 ..... 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마음의 도피성”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족이건 이방 사람이건 그 누구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서 20장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도피성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도피성과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의 도피성은 지금-당장 만들고 마련해야 하는 곳이지만 민수기와 신명기의 도피성은 바로 마련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렇기에 유보되어 있던 일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는 도피성을 세워야 할 구체적인 지명까지 등장합니다. 결국, 민수기 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시했냐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장소를 마련해 두라고 하신 걸까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삶의 모든 정황을 통제할 수 없기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못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 이 같은 일은 빈번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몸을 더 사용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나무를 하러 갔던 이가 실수로 친구를 죽이게 된 예화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인간의 내밀한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을 경우, 이 도피성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지면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해집니다. 이렇듯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우리는 이 도피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물리적인 장소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으로 이 개념을 끌어들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쩌면 도피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두기 공간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게, 이 기적인 자아를 지워가는 공간이 바로 이 도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마음의 도피성들을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해주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